

작품 개요

「자장가」는 작곡자가 51세 때인 1973년 12월 21일 시인 조병화(趙炳華, 1921~2003)의 시에 곡을 붙인 작품이다.

(불행히도 이 곡의 원보는 분실되어 소개할 수가 없습니다.)

작품 해설

이 곡은 토속적인 정감이 풍기면서도 친근감을 느끼게 하는 민속적인 색채가 그 주류를 이루고 있다. 같은 음정구조와 리듬이 연속적으로 반복되어 선율선은 단조롭고 정아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마치 어린시절 등에 업혀 할머니의 자장가 소리를 듣고 있는 듯한 착각에 빠지게 할 만큼 정감어린 민요선율이 작품의 주된 동기로 쓰여지고 있다.

이미 불혹의 나이를 넘긴 시기의 작곡자의 작품이 그간의 모든 실험성과 전통음악의 현대화라는 어려운 작업을 멀리하고 이렇게 정갈하고 깔끔한 민속선율의 부각에 심취하였다는 점은 주목할만한 사실이다.

다른 가곡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이 곡의 또 다른 특징은 헤테로포니의 기법으로 되어 있다는 점이다. 서양음악의 가장 큰 특징인 화성의 사용은 모두 배제하고 오로지 주선율의 윤곽을 돕는 장식적 보조선율이 상성부에서 흐르며 저음부는 노래가락을 그대로 옥타브로 병행시키고 있다. 이는 자장가가 갖는 기능적 특성을 고려한 처리하고도 할 수 있겠지만 단순미와 토속미가 단연 돋보이는 수작이다.

- 이창자, 나운영의 가곡 작품의 유형별 분석, 음악과 민족 제9호, 민족음악연구소 중에서 -